

인지언어학을 통해 본 현대중국어 ‘在’와 한국어 조사 ‘에/에서’의 대조 분석

申敬善*

目次

1. 들어가는 말
2. 선행연구 검토와 문제제기
3. 개사 ‘在’의 원형의미와 다의성
4. ‘在’와 조사 ‘에/에서’의 대조 분석
5. 나오는 말

1. 들어가는 말

본고는 다의어의 하나인 현대중국어 ‘在’의 의미를 분석하여 하나의 형태소가 다양한 의미를 나타내게 되는 과정을 인지적 관점에서 살펴보고, 또한 현대중국어 ‘在’와 한국어 조사 ‘에/에서’의 처소 의미를 대조 분석하여 두 언어의 공간 표지가 공유하고 있는 언중 간의 인지적 유사점과 차이점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 언어에서 형태소는 그것이 지니는 의미의 허실(虛實)에 따라 실질형태소와 형식형태소로 나눌 수 있다. 실질형태소는 구체적인 대상이나 동작, 상태와 같은 어휘적 의미를 표시하며 형식형태소는 이러한 실질형태소에 붙어 말과 말 사이의 관계나 기능을 형식적으로 표시한다. 말과 말 사이의 형식적 관계를 문법적 관계라 하는데 그 기능을 형식형태소가 담당하기 때문에 문법형태소라 부르기도 한다.¹⁾

* 金剛大學校 通商通譯學科(中國語) 助教授, sunshanghai@ggu.ac.kr

현대중국어와 한국어에서 이런 문법적 관계를 표시하는 문법 기능어로 각각 개사와 조사를 꼽을 수 있다. 이러한 기능의 유사성으로 인해 중국어 학습자 혹은 한국어를 학습하는 중국인들은 중국어 개사를 한국어 조사와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으며, 또한 이러한 영향으로 세 개의 품사로 쓰이는 ‘在’의 사용에 있어서 가장 많이 출현하는 오류가 개사 ‘在’의 사용이다.²⁾

언어를 연구하는데 있어 기존의 연구는 통사적인 접근법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었고, 대조 연구에서도 통사적, 의미적 대응 관계를 밝히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그러나 이러한 의미적 대응 관계의 기저에 어떠한 언어 현상이 작용하고 있는 지, 왜 그렇게 대응되는 지에 대한 연구와 이론은 부족하다고 할 수 있으며, 또한 그 결과를 외국어 교육 현장에서 활용하는데 문제점은 없는 지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연구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언어 체계라는 것은 언어 자체만으로는 자족적인 체계를 이룰 수 없으며, 그 체계 안에는 언어 사용의 주체인 인간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 인간의 인지 과정이 어휘와 문장에서 어떻게 언어 현상에 작용하며 그것을 어떻게 언어화시키는지 인지 과정의 고찰을 통해 ‘왜’라는 질문에 적절한 대답을 구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했을 때 교육적인 효과는 더욱 커질 수 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1) 남기심(1993 : 45-48) 참조.

2) 유재원·김윤정(2008 : 173-174)은 ‘在’ 구문에 보이는 어휘대체, 어휘전이, 어순, 정보초점이동 네 오류 유형은 모국어의 간섭에서 비롯된 상호 유기적인 오류 유형으로 ‘在’구문은 모국어의 간섭에 의한 오류 유형이 총체적으로 나타나는 구문이라고 하였다. 이금정(2005)은 ‘在’의 의미별 오류를 분류하여 중국어 학습자들이 ‘在’구문을 학습할 때 개사의 용법에서 가장 많은 오류가 출현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염준(2007:6)은 다음과 같이 ‘在’구문에 보이는 오류를 분류하였다.

의미분류	처소	시간	조건	변위	상태	진행	합계
횟수	251	55	15	45	17	1	385
빈도	66%	14%	4%	12%	4%	0. 2%	100%

<표 1> ‘在’구문의 오류 분석을 의미별로 분석한 결과

2. 선행연구 검토와 문제제기

대조분석은 외국어의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 두 언어의 언어 체계나 언어 현상 등을 비교하여 그 차이나 유사점을 밝히는 연구 방법의 일종으로 미국에서는 1940년대와 1950년대에 구조주의 언어학을 언어교육에 적용시키면서 태동하기 시작했다. 1992년 한중수교 이후 국내의 중국언어학계에서는 중국어 교육이 활기를 띠면서 한국어와 중국어의 여러 언어 현상에 대한 대조 분석이 활발하게 진행되었고 중국에서도 초기에는 동포 학자들에 의해 주도되었다가 2000년대에 들어서 최근에는 한족 학자들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그 연구 범위도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³⁾

현대중국어 '在'와 관련하여 한국어 조사를 대조 분석한 초기의 학자로 柳英綠(1985)을 꼽을 수 있는데, 그는 한국어의 부사격 조사 '에서'를 '位格'으로 '에'를 '與格'으로 구분하고 9개의 '在+NP'문형과 대응 관계에 있는 한국어 문형을 분류하여 중국어 어순과 한국어 어순을 대조하고 동작 행위자의 NP 내 존재여부, 동사의 타동성 여부 등을 기준으로 두 언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열거하였다. 그의 연구는 '在'와 한국어 조사의 대조분석을 중국인의 관점에

3) 염준(2007 : 3-4)의 조사에 따르면 한중 간 대조 연구는 다음과 같다.

년도	논문수	대조 연구 분야
1999	4	부사, 동형이의어, 의미, 기능
2000	4	문형, 한자어
2001	5	부사, 한자어, 음운
2002	8	한자어, 사자성어, 존대어, 단어끼리 음운, 속담
2003	9	한자어, 동사, 단어정렬, 시상, 어미, 담화생략, 음운, 공문문체
2004	6	호칭어, 한자어, 속담, 조어법, 분류사
2005	23	호칭어, 관형어, 의성의태어, 동형이의어, 사자성어, 신체어, 형용사, 수량사, 조사, 단축말, 텍스트, 결속음성, 어휘, 의미, 시간, 부정법, 인터넷언어
3006	29	관형사, 대명사, 접두사, 방위사, 과학시술용어, 접어, 관용어, 접미파생어, 음운, 접속문, 감정표현, 화제, 부정법, 방송언어

<표2> 한중 대조 연구 논문 분류표

서 시도한 최초의 논문이라는 점에서 가치를 인정할 수 있으나 두 언어 사이의 유사점과 차이점에 대한 문법현상에 대한 통사적 단순 비교 분석이라는 한계를 벗어나기 어렵다.

강해연(2004)은 그의 석사 논문에서 중국어와 한국어의 공간 개념 표지가 비공간 개념으로 확산되어 가는 은유의 과정을 분석하였다. 그는 결론에서 인간의 공간 개념에 대한 인식은 언어를 초월하여 공통된 특징을 갖는 것으로 각 민족의 문화 배경, 사회 환경 및 인지특성에 따라 동일한 개념일지라도 목표영역에 투사될 때 각기 다른 차이를 보이게 된다고 하였다.

박창수(2005)는 한국어 조사 ‘에’와 ‘에서’에 상응하는 중국어 표현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중국어 학습자에게 일부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했다고 할 수 있으나, ‘동사+ 在+ 장소명사’와 ‘在+ 장소명사+ 동사’의 의미 차이와 동사의 성격, 조사 ‘에/에서’와의 대응 관계 등은 언급하고 있지 않아 연구의 범위와 제시된 예시가 전면적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최건(2006)은 한국어의 공간표지와 중국어의 공간표지의 ‘공용’과 ‘통용’ 현상에 중점을 두고, 두 개의 다른 언어 사회가 공간 개념을 어떻게 분배하는지의 개념을 보여주며 이로써 서로 다른 언어의 공간표지의 교차와 대응관계가 표출된다고 분석하였다.

염준(2007)은 처소 의미를 중심으로 ‘在’와 처소격 조사 ‘에서’, ‘에’를 통사적, 의미적으로 분류하고 이들의 대응 관계와 대응 환경을 분석하였고, ‘在’의 대응어로 ‘에서’와 ‘에’가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在’가 동사에 상대하여 나타나는 위치를 기준으로 ‘在+ NP’가 동사 앞에 위치할 때는 ‘에서’와 대응되고 ‘在+ NP’가 동사 뒤에 위치할 때의 ‘在’는 ‘에’와 대응되는 비율이 높다고 밝혔다.

왕봉(2008)은 한국어 부사격 조사 ‘에’, ‘에서’, ‘에게’와 상응하는 중국어 개사를 비교하여 그 유사성과 차이점을 밝히는 것에 중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였지만, 기존의 연구 방식과 틀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한국어 조사와 중국어 개사의 대응관계, 의미차이 등을 소개하는 범위에 머무르고 있다.

그동안의 현대중국어 '在'와 상응하는 한국어 조사 '에/에서'에 관한 대조 연구에서는 두 언어의 공간 표지 사이에 존재하는 '유사성'과 '차이점'의 "대응 기제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연구는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문에서는 현대중국어 '在'와 한국어 조사 '에/에서'의 대응 관계를 이해함에 있어 인지언어학적 관점을 활용하는 분석법을 제시하여, 대조언어 교육에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3. 개사 '在'의 원형의미와 다의성

3.1 이론적 배경

'인지'란 우리의 머리속에 정보가 저장되고 사용되는 과정으로, 인지언어학이란 언어 사용에 있어서 음운, 형태, 통사와 같은 형식적인 측면의 이해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내용적인 측면에서 의미 파악을 하는 것, 즉 '의미 파악 과정'으로서의 언어에 대하여 연구하는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인지언어학에서는 인간의 언어 행위를 세계에 대한 인간의 이해 즉 일반적인 인지 과정과 별개의 것으로 보지 않으며, 인간의 사고란 근본적으로 신체화된 경험에서 유래한다는 생각을 기초로 하고 언어를 인간이 살아가는 환경 및 타인과의 상호 작용이라는 맥락 속에서 인식한다.⁴⁾

인간의 인지 과정을 통해 획득된 개념들은 인간의 기억 속에서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사이의 내재적인 관계를 통해 한 단계 상위의 개념인 범주⁵⁾ 형성하여 존재하는데 이러한 의미 형성 과정은 구조화된 신체

4) 임지룡(1997:17) : 이러한 관점을 Lakoff([1987]1994)는 '경험적 실재론(experiential realism)' 또는 '경험 기반주의(experientialism)'라 부르며, 임지룡은 체험주의(experientialism)라고 번역하였다.

5) Lakoff (1994 : 7) : Lakoff는 범주라는 것을 '사물 혹은 사건이 그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라는 이분법을 갖대로 형성된 추상적 그릇이며, 사물은 어떤 공통 속성을 공

적 경험, 즉 '영상 도식(Image schemas)'의 체계를 기반으로 범주화되고, 이렇게 형성된 의미는 '은유, 환유' 등을 통해 확장되어 나간다.

영상 도식은 인간이 경험한 수많은 사건과 사물에 대한 이해가 개념화되는 과정 이전에 존재하는 심층적 경험 구조로서 기저에는 신체에 의한 경험이 일정한 패턴으로 존재한다. 즉 '안-밖', '위-아래', '경로'와 같은 개념들은 인간의 개념 체계 속에 이미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이는 세계에 대한 개념화가 일어나기 전에 이미 발생한 '선개념적(preconceptual)' 경험에 의해 구조화된 것이다. 이러한 심층적 경험 구조는 인간이 세계를 이해하는데 있어 틀과 같은 작용을 하여 그 경험들을 일정한 패턴으로 이해하도록 한다.⁶⁾ 인간은 이와 같은 기초적인 도식을 통하여 자신이 경험하는 물리적 현상뿐만 아니라 은유를 통해 확장된 추상적 현상까지도 개념화 한다.⁷⁾

인지 과정을 통해 획득된 의미는 그 원형의미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더 주변적인 의미로 확장되어 나가는데 이 때 확장의 기제로 사용되는 것 중의 하나가 비유법으로 은유(metaphor)와 환유(metonymy)가 여기에 속한다.

은유는 한 종류의 사물을 다른 종류의 사물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경험하는 것이다. 즉 'A는 B이다'라고 이야기 할 때 항목 A가 지니는 인지 영역을 B의 영역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은유적 관계를 내적이며 잠재적인 대등성을 기초로 한 동일화라고 한다면 환유적 관계는 현실 속에 주어진 외적인 인접성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Lakoff는 환유의 인지 원리에 대해 '일반적으로 잘 알고 있거나 쉽게 지각할 수 있는 일면을 취하여 그것을 사용하여 그 전체 혹은 다른 면이나 특정한 부분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제시하였다.⁸⁾

유하고 있을 때에만 동일한 범주에 속하며 이와 동시에 사물의 공통 속성이 범주를 결정한다고 보았다.

6) Johnson([1987]2000 : 103-125) 은 '그릇', '경로', '연결', '위-아래', '부분-전체' 등과 같은 영상 도식을 제시하였고 이와 같은 도식을 매개로 인간의 경험이 인지됨을 밝혔다.

7) Traugott & Heine(1991 : 157) 등은 언어 표현이 신체의 경험과 그에 의한 영상 도식을 토대로 하고 있음을 밝히고 여러 언어의 어휘의 의미 변화를 관찰하면 은유가 발생하기 이전의 어휘들이 신체나 사물, 공간과 관련이 깊음을 발견하였다.

여기에서는 상술한 의미의 형성, 확장 과정에서 관련된 기제들을 분석의 방법으로 활용하여 '在'의 개념화 방식과 어떤 방식으로 의미의 확장이 이루어졌으며 또한 한국어 조사 '에/에서'와 어떻게 대응 구조를 이루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3.2 개사 '在'의 원형의미와 다의성

3.2.1 개사 '在'의 원형의미

인지언어학적 관점에서 볼 때 사람의 인지 발달 과정에서 공간 개념은 구체적인 실체가 공간 위에서 움직임을 나타내는 구체적인 것임으로 초기 단계의 개념으로서 근원적인 것으로 판단한다. 그리고 세상에 존재하는 존재물이나 세상에 일어나는 사건 등도 공간적 배경 없이는 성립할 수 없으므로 이 공간 개념은 우리의 인지 과정상 가장 중요하고 기초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⁹⁾ Lakoff 와 Johnson(2003)은 공간 개념은 인간의 개념 체계에서 은유(metaphor)를 통하지 않고도 직접적으로 이해되는 즉 아동이 가장 먼저 인지하는 기본적인 개념이라고 하였다.

박중환(1998)은 사전상의 첫 번째 의미를 원형의미로 판단하였는데 대체로 한 단어의 여러 의미 중에서 가장 많이 그리고 오랫동안 쓰인 의미가 사전상의 첫 번째 의미로 등장하기 때문이다. 『現代漢語辭典』에서 제시하는 '在'의 첫 번째 의미는 '【在】 [動]存在, 生存'으로 '在'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존재하다, 생존하다'이다.¹⁰⁾ 김현희(2005) 역시 사물이나 사람이 존재함을 시간적으로 인지한 동사로서의 '在'가 그 밖의 다른 용법보다 더욱 오랫동안 보편적으로 사용되었으며, 다른 의미로 확장되어가는 출발점으로 판단하였다. 陈一民(1996)은 동사의 '在'와 개사의 '在'가 모두 '존재'의 의미를 갖고 있으며 이러한 사실로 볼 때 '존재하다, 생존하다'를 개사 '在'의 원형의미로 판단

8) Lakoff (1994 : 9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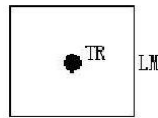
9) Zlatev, Jordan(2007 : 318) 참조.

10) 『現代漢語辭典』(2005年第5版 : 1694)참조.

할 수 있다고 하였다. 본고에서도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존재하다, 생존하다’를 ‘在’의 원형의미로 보며 개사 ‘在’ 역시 이러한 원형의미가 확장되어 나온 것으로 판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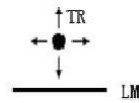
- (1) 他在房間裏。(그가 방 안에 있다.)
- (2) 他在飛機上看書。(그는 비행기에서 책을 본다.)
- (3) 他在馬路上跑步。(그는 큰 길에서 달리기를 한다.)

예문(1)은 동사의 ‘在’로서 탄도체인 ‘他’가 지표(혹은 참조물)인 ‘房間’에 존재하고 있으며, 예문(2)는 개사의 ‘在’로서 탄도체 ‘他’가 행위 동작 발생의 지표인 ‘飛機’에 존재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예문 (1), (2)는 모두 폐쇄된 3차원적 공간 영역을 인지적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고, 이는 ‘그릇 도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



<그림1> ‘在’의 원형의미 1¹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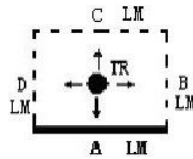
예문(3)의 지표는 폐쇄되지 않은 2차원적인 공간으로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그림2> ‘在’의 원형의미 2

11) <그림1> ‘在’의 인지모형에서 사용하고 있는 부호 TR은 탄도체(Trajector)를 나타내며, LM은 지표(Landmark 혹은 참조물)를 나타낸다. <그림1>의 ‘□’은 LM을 표시하며, ‘●’은 TR을 표시한다. 본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在’의 인지모형은 王葆華·申敬善(2008)에서 제시했던 것으로 본문의 인지적 관점의 대조 연구에 필요한 선행 연구 이기에 본문에서 인용한 것임을 밝힌다.

편의상 <그림1>과 <그림2>를 합하면 다음과 같은 인지모형으로 나타낼 수 있다.



<그림3> '在'의 원형의미 3

<그림3>의 A, B, C, D 네 변은 지표 LM을 나타내며 점선으로 처리된 B, C, D는 잠재적인 지표를 나타내는 것으로 굵은 실선으로 부각된 A와 구분된다. 1차원적인 혹은 2차원적인 공간 영역이 인지 바탕이 되면 A만 실선으로 표시되고 만일 A, B, C, D 네 변이 모두 실선으로 출현하면 전형적인 3차원의 공간 영역이 인지 바탕이 된다.

공간 개념을 중심으로 한 '在'는 '그릇 도식'으로 영상화되고, 은유, 환유 등의 인지 기제를 통하여 비공간적인 개념으로까지 확장되어 간다. 즉 동사로서의 '在'는 공간성을 중심으로 하는 '在'의 의미 범주에서 원형의미에 가까운 의미 요소를 지니고 있으나, 개사로서의 '在'는 원형에서 조금 더 떨어진 의미를 지니게 된다.

3.2.2 개사 '在'의 다의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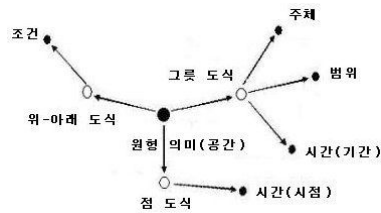
'在'의 의미 범주는 '존재하다, 생존하다'는 원형의미를 토대로 여러 가지 다른 의미로 확장되어 여러 의미 간에 연결 고리를 만들어 의미 연쇄를 형성한다. 특히 기본 의미가 동작의 발생과 장소의 관계를 인지 영역으로 할 때 모종의 동작이 공간 영역 내에서 이루어짐을 나타내게 되고 그 동작의 바탕 영역은 개사 '在'에 의해 유도된다. 즉 <그림3>에 나타난 탄도체(TR)가 존재하고 있는 공간 영역은 물리적인 장소뿐만 아니라 은유, 환유의 기제를 통해 추상적인 영역으로 전환된다. 《現代漢語八百詞》에서는 개사 '在'가 '시간', '범위', '조건', '행위주체' 등 4종류의 비공간 의미를 나타낸다고 하였는데,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4) 他在一九七零年9月1日上大學。(시간)
(그는 1970년 9월 1일에 대학에 입학했다.)
- (5) 在那幾天, 我們天天盼望北京的消息。(시간)
(그 몇 일 동안, 우리는 날마다 북경으로 부터의 소식을 기다렸다.)
- (6) 在爲人處世方面, 你要多幫助他。(범위)
(인간관계와 사회생활에 있어서, 네가 그를 많이 도와주어야 해.)
- (7) 在這個問題上, 我們交換了充分的意見。(범위)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충분히 의견을 교환하였다.)
- (8) 在老師的幫助下, 他學習進步很快。(조건)
(선생님의 도움 아래에서, 그의 학습은 빠른 속도로 향상되었다.)
- (9) 在媽媽的追問下, 孩子說出了實情。(조건)
(어머니의 추궁으로 아이는 사실을 털어 놓았다.)
- (10) 在我看來, 問題不難解決。(행위주체)
(내가 보기에는 문제 해결은 그다지 어렵지 않다.)
- (11) 這種半耕半讀的生活, 在他已經習慣了。(행위주체)
(그는 이런 주경야독의 생활에 이미 익숙해 있다.)

예문 (4)(5)의 ‘在一九七零年9月1日’, ‘在那几天’는 개사 ‘在’가 이끄는 구문으로 시간 영역을 나타낸다. 예문 (4)가 시간 영역 위의 어느 한 시점을 나타내는 것과는 달리 예문 (5)는 기점과 종점으로 시간 영역을 구분하고 있어 영상도식의 그릇 도식에서와 같이 구역을 나누는 경계선을 갖고 있다. 예문 (6)(7)은 범위를 나타내는 개사 ‘在’가 쓰인 경우로, 그 범위가 평면적인 것이든 입체적인 것이든 모두 일정한 구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在爲人處世方面’, ‘在這個問題上’라는 추상적인 영역에 탄도체가 존재하고 있어 이러한 범위 내에서 행위, 동작이 발생함을 알 수 있다. 예문 (8)(9)에서 ‘在’의 바탕영역은 모종의 조건으로 탄도체인 ‘學習進步’와 ‘實情’이 발생하는 조건을 나타내고 예문 (10)(11)은 행위의 주체를 나타내는 것으로 행위의 주체를 부각시키는 역할을 개사 ‘在’가 담당하는 것이다.

위의 예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탄도체가 존재하는 영역은 공간 영역뿐만 아니라 은유의 과정을 거쳐 시간, 범위, 조건, 행위 주체 등의 의미로 전환되기도 한다. 이와 같은 영역의 전환이 일어나게 되는 것은 시간, 범위, 조건, 행

위 주체 등과 같은 추상적인 의미들 역시 물리적 공간이 나타내는 특성, 즉 어떠한 물체를 수용할 수 있고 모종의 경계를 지니고 있는 등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在'의 다의성은 다음과 같은 의미망을 형성할 수 있다.



<그림4> '在'의 의미망¹²⁾

‘●’은 원형의미(Proto-Scene)이며, ‘○’은 의미 연쇄(Sense Cluster), ‘●’은 각각의 의미항을 나타낸다. 개사 ‘在’의 의미 연쇄는 공간 개념이 다의성 형성의 중심이 되며, ‘그릇 도식’을 의미 연쇄로 한 ‘주체, 범위, 시간’의 의미항, ‘점 도식’을 매개로 한 ‘시간’의 의미항, ‘위-아래 도식’을 매개로 한 ‘조건’의 의미항으로 구성된다.

4. '在'와 조사 '에/에서'의 대조 분석

4.1 한국어 조사와 중국어 개사의 개념 대조

한국어 조사 '에/에서'와 중국어 개사 '在'를 대조 분석함에 앞서 유사성과 상이성이 함께 존재하는 한국어 조사와 중국어 개사의 개념을 간략히 정리해 본다. 첫째, 조사와 개사는 모두 자립형태소가 아닌 의존형태소이고, 실질형태소가 아닌 형식형태소이다. 즉 실질형태소에 붙어서 어떤 문법적 관계나 기

12) <그림4>의 개사 '在'의 의미망 형성에 관해서는 王葆華·申敬善(2008)참조.

능을 나타내는 형태소이다. 형태소 자체에 실질적인 의미가 없기 때문에 앞뒤 결합하는 명사와 서술어에 따라 그 의미가 다양하게 나타난다. 아울러 의존형태소이기 때문에 단독으로 주어나 술어 역할을 담당할 수 없다. 둘째, 개사는 다른 개사와 연이어 사용되지 않지만 조사는 하나의 조사에 다른 조사가 덧붙여 사용되기도 한다. 주로 격조사, 보조사, 보조사와 보조사가 함께 쓰이기도 한다. 셋째, 위치에 있어 조사는 명사 뒤에 붙는 후치사이고 개사는 목적어 앞에 위치한다. 넷째, 조사와 개사는 모두 문장 안에서 주로 부사어 역할을 담당한다. 즉 대부분의 조사와 개사가 이루는 성분은 동사 앞에 위치한다. 일부 개사가 동사 뒤에 위치하여 보어 역할을 하기도 하고 관형어, 문두 수식어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일부 개사에 한정된 것으로 개사의 주요 역할은 부사어를 담당하는 것이다. 다섯째, 조사와 개사는 모두 명사성 단어 뒤에 붙는다. 일부 개사가 형용사(구), 동사(구), 주술구 등을 목적으로 취하기도 하지만 이러한 성분은 모두 명사적 성질을 가지고 있다. 여섯째, 조사와 개사는 원래 동사에서 변해 온 것이다. 일부 개사는 아직 까지 동사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 때에 따라 동사와 개사의 역할을 겸하고 있다. 이에 비해 조사는 오로지 조사의 역할만 담당한다.¹³⁾

4.2 조사 ‘에’와 ‘에서’의 처소 의미 비교

한국어 조사 중에서 ‘에’와 ‘에서’는 시간적, 공간적 범위를 나타내는 처격(處格, locative)의 대표 형태이다. 즉 우리의 일상 언어생활에서 가장 빈번하게 출현하는 조사가 바로 ‘에’와 ‘에서’이다. 최재희(2004)는 ‘에’와 ‘에서’를 서술어가 지시하는 행위가 발생하는 시간적, 공간적 범위를 가리키는 것으로 처격 조사의 대표 형태로 보았다.¹⁴⁾ ‘에’와 ‘에서’의 의미가 다양하지만 개사

13) 한국어 조사와 중국어 개사의 대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박창수(2005)참조.

14) 최재희(2004 : 129-135)는 ‘에’와 ‘에서, 에게, …한테, 에게서’ 등 처격조사의 다양한 쓰임과 관용적 표현이 있음을 인정하였으나, 이러한 여러 가지 쓰임을 가지는 처격조사를 별개로 보지 않고 모두 시간적, 공간적 범위를 지시하는 의미 기능을 수행하는

'在'와 대응할 수 있는 용법은 주로 시간과 처소 항목이다.¹⁵⁾

'에'와 '에서'는 다 같이 처소를 나타내지만 그 쓰임이 달라서 바꾸어 사용할 수 없다. 서정수(1994)는 '에'는 단순한 위치 지정이나 관계 대상을 표시하고, '에서'는 어떤 움직임이 구체적으로 벌어지는 곳을 가리킨다고 보았다.¹⁶⁾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문법1』(2005)의 의미 분류를 따르면, 어떤 명사가 대상이 존재하는 위치를 나타내는 부사어로 쓰이기 위해서는 '에'와 결합하여야 하며, 어떤 대상의 동작이나 행위가 일어나는 곳을 나타내는 부사어로 쓰이기 위해서는 조사 '에서'가 붙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12) 학생들이 교실에 있다.
(學生在教室裏。)
- (13) 학생들이 교실에서 공부를 한다.
(學生在教室裏念書。)
- (14) 고양이가 소파 뒤에 숨었다.
(貓躲在沙發後面。)
- (15) 고양이가 소파 뒤에서 생선을 먹는다.
(貓在沙發後面吃魚。)
- (16) 그는 어제 부산에 도착했다.
(她昨天到釜山。)
- (17) 그는 어제 부산에서 관광을 했다.
(她昨天在釜山旅游。)

예문 (12)(14)(16)은 학생들의 위치, 고양이가 숨은 위치 및 어제 도착한 지점을 나타내고, (13)은 학생들이 공부하는 구체적인 행위, (15)는 고양이가 생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보았다.

15) '에'와 '에서'의 사전적 의미를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에	존재 처소, 목표 처소, 일반 처소, 시간, 원인 이유, 단위, 판단 기준, 행위자, 도구, 수혜, 부가, 자격 신분, 환경(출전), 한정된 범위, 심리 대상, 목표 대상, 나열, 관용 표현
에서	처소, 출발점, 동기, 비교 기준, 주격 조사

<표 3> '에'와 '에서'의 사전적 의미

16) 서정수(1994 : 783) 참조.

선을 먹는 행위, (17)은 관광이라는 행위가 발생한 장소를 나타낸다. 이상의 예문에서 알 수 있듯이 ‘에’는 단순한 위치 지정이나 관계 대상을 표시하고 ‘에서’는 어떤 움직임이 벌어지는 곳을 가리킨다. 이에 따라 ‘에’와 ‘에서’는 중국어에서도 각기 다르게 표현됨을 알 수 있다. (12)는 ‘존재하다’는 의미의 동사 ‘在’, (13)(15)(17)는 개사 ‘在’가 쓰여 ‘개사+명사+동사’의 형식을 취하였고, (14)는 ‘동사+개사+명사’, (16)은 ‘동사+명사’로 표현되었다.

염준(2007)에 따르면 조사 ‘에’와 ‘에서’에 대응하는 중국어 표현은 어느 정도 일정한 규칙을 보이는데, ‘在’가 동사 앞에 위치할 때는 주로 ‘에서’가 쓰이며, ‘在’가 동사 뒤에 위치할 때는 주로 ‘에’와 대응되는 비율이 높다. 예를 통해 살펴 보자.

- (18) 咱倆以前在王老師家見過一次。
 a. 우리 예전에 왕선생님 댁에서 한 번 만난 적이 있어요.
 b. *우리 예전에 왕선생님 댁에 한 번 만난 적이 있어요.
- (19) 他在院子裏睡覺。
 a. 그는 정원에서 잠을 자고 있다.
 b. *그는 정원에 잠을 자고 있다.
- (20) 掉在地上。
 a. 땅에 떨어졌다.
 b. ? 땅에서 떨어졌다.
- (21) 跳在水裏。
 a. 물에 뛰어 들었다.
 b. ? 물에서 뛰어 들었다.

예문 (18)(19)의 한국어 번역 (18b)(19b)는 성립하지 않는다. 예문 (20)(21)의 경우 (20b)(21b)로 번역하게 되면 그 의미는 달라진다. 염준(2007)에 의하면 ‘在’가 동사 앞에 나타나는 ‘在₁’과 대응하는 ‘에서’의 출현 비율은 54.3%, 동사 뒤에 나타나는 ‘在₂’에 대응하는 ‘에’의 출현 비율은 36.7%이다. 그렇다면 ‘在₂’와 ‘에’, ‘在₁’과 조사 ‘에서’가 대응되는 기제는 무엇인가?¹⁷⁾ 이러한 언

17) 편의상 동사 앞에 위치하는 개사 ‘在’를 ‘在₁’, 동사 뒤에 나타나는 ‘在’를 ‘在₂’라고 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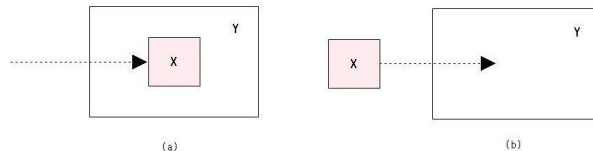
어 현상의 기저에는 어떠한 인지적 배경이 있는 지 다음 절에서 분석해 본다.

4.3 조사 '에'와 '在₂'의 대조 분석

물리학의 관점에서 볼 때 존재하는 객관적인 물체는 언제나 절대운동의 상태에 놓이며 그 운동이 절대적인 것이라면, 정지는 상대적인 것이다. 공간에 위치한 물체의 위치 변화는 바로 물체가 운동 중임을 나타내는 것이고, 물체의 위치 변화는 언제나 공간의 특정한 참조점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在'와 조사 '에/에서'는 이러한 공간의 참조 위치와 관계한다. 이기동(1981)은 '에'는 X와 Y라는 두 개체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데, Y는 바탕의 구실, X는 Y의 바탕 위에 장소의 이동이나 상태 변화를 받는 대상이라고 보았다. 예문을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22) a. 나는 어제 서울에 왔다.
- b. 아내는 내일 미국에 간다.

예문을 인지 모형으로 나타내어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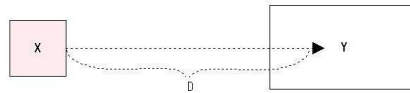


<그림5> 조사 '에'의 인지 모형

<그림5> 중 (a)(b) 상의 X의 실제 위치는 같지 않다. 예문 (a)의 동사 '왔다'와 (b)의 '간다'의 시제가 같지 않기 때문이다. 동작이 이미 발생한 그림 (a)의 X는 인지 바탕인 Y 위에 위치하며, 동작이 아직 발생하지 않은 그림 (b)의 X는 Y 위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X가 Y 상에 존재하는지와 관계없이 그림 (a)(b)의

르기로 한다. 본문에서는 동사 뒤에 나타나는 '在'의 품사 문제는 다루지 않기로 한다.

Y는 X가 이동한 후의 참조 위치를 나타낸다. 이와 같은 관계를 토대로 참조 위치를 나타내는 조사 ‘에’의 원형의미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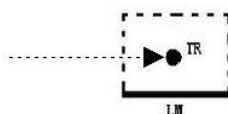
<그림6> 조사 ‘에’의 원형의미

<그림6> 상의 화살표는 X와 Y의 관계를 보여주며, 화살표의 길이 D는 동작을 통해 X가 Y상에 위치하게 될 시간적 거리를 나타내지만 동작 진행 후의 결과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Y는 X 보다 안정적이며 정태적인 지표가 되고, X는 Y를 기준으로 움직이는 동태적인 존재인 탄도체가 된다.

- (23) a. 중국어책을 책상에 놓아두었다.
b. 漢語書放在桌子上。
(24) a. 주소를 편지봉투에 써주세요.
b. 請把地址寫在信封上。
(25) a. 우산을 차에 두고 내렸다.
b. 雨傘忘在車上了。

예문 (23)-(25)중의 탄도체(TR)는 모두 동작을 통해 지표(LM)에 접촉 혹은 부착의 관계를 갖게 된다. ‘중국어책(漢語書), 주소(地址), 우산(雨傘)’은 동작을 통해 ‘책상(桌子), 편지봉투(信封), 차(車)’에 부착 혹은 접촉하게 되었다. 즉 정태적인 존재 관계를 갖게 되는 것이다. 崔希亮(2004)에 의하면 모든 존재 관계는 정태, 동태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 정태적 존재 관계는 탄도체와 지표와의 상대적인 위치를 부각시키거나, 혹은 존재물의 존재 상황이나 변화 결과, 탄도체와 지표의 관계를 부각시킨다. 이희자·이종희(1998)는 ‘에’는 동작이나 상태가 나타나는 지점을 가리키며, 또한 동사의 움직임이 그 상태로 계속되는 것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즉 ‘에’는 정적인 특질을 갖는다. 조사 ‘에’와 ‘在’는 발생한 동작을 통해 정태적으로 존재하는 관계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

는 것이다. 그러므로 조사 '에'와 '在₂'는 '경로 도식'을 사용해 다음과 같이 도식화할 수 있다.¹⁸⁾



<그림7> 조사 '에'와 '在₂'의 경로 도식

<그림7>의 네 변 LM 중 굵은 실선으로 부각된 밑변은 1, 2차원적인 공간 영역을 인지 바탕으로 한 경우이며, 점선으로 처리된 세 변은 잠재적인 지표로서 3차원적 공간 영역이 인지 바탕일 때 실선으로 출현한다. TR은 동작을 통해 지표 LM 안에 존재하게 되며, LM과 접촉 혹은 부착의 관계를 갖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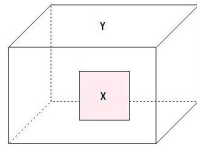
4.4 조사 '에서'와 '在₁'의 대조 분석

이기동(1981)은 '에서'는 어떤 상황이나 사건의 전체 배경을 나타내는 것 외에, X(모습)가 Y(바탕)에 포함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예문을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26) 그는 방 안에서 TV를 본다.
他在房間裏看電視。
- (27) 그는 체육관에서 운동을 하고 있다.
他在體育館裏作運動。
- (28) 남동생은 풀밭에서 뛰어 다니고 있다.
弟弟在草坪上跑着。
- (29) 선생님은 운동장에서 태극권을 시연하고 계신다.
老師在運動場上表演太極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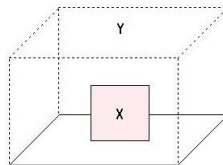
19) 崔希亮(2004)은 경로 은유 도식(path metaphor schema)을 통하여 '在₂'의 인지 과정을 밝힐 수 있다고 하였다.

예문 (26)(27)에서 ‘방(房間)’과 ‘체육관(體育館)’은 ‘TV를 본다(看電視), 운동을 하고 있다(作運動)’는 행위가 진행되는 장소이자, 대상(X)을 포함하고 있는 배경(Y)이 된다. ‘방, 체육관’은 모두 인간의 인지 과정에서 대상을 포함할 수 있는 ‘용기(容器)’로 인식되고, 이는 ‘그릇 도식’으로 설명될 수 있다. 예문을 인지 모형으로 나타내어 보자.



<그림8> 조사 ‘에서’의 원형의미1

<그림8>의 X는 동태적 존재인 탄도체로서 행위, 동작 발생의 처소 혹은 배경이 되는 Y 안에 존재한다. 조사 ‘에서’의 원형의미가 부각시키는 것은 X가 명확한 경계를 가지고 있는 공간 Y안에서 진행하고 있는 활동이나 사건으로, 동태적인 존재 관계를 나타낸다. Y는 예문 (28)(29)의 ‘풀밭(草坪), 운동장(運動場)’과 같이 밀폐되지 않은 장소가 될 수도 있다. 이런 경우 인지모형은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그림9> 조사 ‘에서’의 원형의미2

<그림9>의 인지모형은 앞 장 3.2.1에서 살펴 본 개사 ‘在’의 원형의미와 일치하는 것으로, 중국어와 한국어의 공간개념 표지 ‘在’와 조사 ‘에서’가 인간의 공간 개념에 대한 인지 과정에 작용하는 보편적 인지적 근거를 공유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희자·이종희(1998)는 ‘에서’는 동작이 벌어지는 자리를 나타내는 것 이외에도, 움직임이 변화되면서 계속 일어나는 것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崔希亮(2004)이 밝힌 바와 같이 동태적 존재 관계는 어떤 배경 하에서 탄도체의 운동 상태, 탄도체가 참여하고 있는 활동과 사건을 부각시킨다. 예문 (28)은 탄도체 '남동생'과 지표 '풀밭' 사이의 동태적인 존재관계를 부각시키고, 예문(29)은 '선생님'과 '태극권'이 모두 같은 장소에 존재하고 있으며, 행해지는 동작은 '처음'과 '끝'으로 이루어진 변화 과정을 부각시키고 있다. 즉 '에서'는 동적인 특질을 갖고 있으며 대응 관계에 있는 '在₁' 역시 동태적 관계를 부각시킨다. 다음과 같은 경우는 '에'와 '에서'를 혼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 (30) 弟弟在首爾住。 / 弟弟住在首爾。
 a. 남동생은 서울에서 살고 있다.
 b. 남동생은 서울에 살고 있다.

'살다, 머무르다, 체류하다' 등의 동사는 '행위'와 '존재' 두 가지 의미를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동사가 서술어인 문장에서는 주어가 존재하는 장소를 나타내는 명사에 '에'와 행위가 이루어지는 배경을 표시하는 '에서'를 모두 사용할 수 있다. 예문 (30)의 경우 '에'를 사용하면 '남동생'이 존재하는 위치를 나타내고 '에서'를 사용하면 실제로 '사는' 행위가 일어나는 곳을 말한다. 즉 사용하는 조사에 따라 부각되는 의미는 서로 다르게 된다.¹⁹⁾

5. 나오는 말

인간의 공간적, 물리적 경험은 언어가 표현하고자 하는 개념에 근본적인 의미와 의미구조를 부여한다. '존재하다, 생존하다'는 '在'의 원형의미로 인간의 일상생활의 경험이 언어 안에서 실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중국어는 엄격

19) '在₁'에 '에'가 대응되고 '在₂'에 '에서'가 대응되는 교차 대응어에 대해서는 염준(2007) 참조.

한 의미의 형태 변화가 없는 언어로 어순의 변화는 매우 중요한 의미전달의 수단이다. 다의성을 지닌 ‘在’는 동작 발생의 장소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동사 앞에 출현하고, 동작을 통하여 결과가 위치하게 되는 장소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동사 뒤에 사용된다. 즉, 동일한 형태소를 사용하지만 어순의 변화를 통해서 의미의 차이를 표현한 것이다.

인지언어학적 관점으로 고찰해 본 결과 동사 앞에 출현하는 개사 ‘在’는 한국어 조사 ‘에서’와 대응하고, ‘에서’의 원형의미는 동작이 벌어지는 장소와 그 동작이 변화되면서 계속 일어나는 것으로 표현되며 동태적 존재 관계를 나타내는 개사 ‘在’와 일치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에’의 원형의미는 동작 진행 후의 결과 존재 위치로 정태적 존재 관계를 나타내는 동사 뒤에 출현하는 ‘在’의 원형의미와 일치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점은 중국어와 한국어의 공간개념 표지 ‘在’와 ‘에/에서’에 인간의 인지적 표출이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언어와 그 의미의 발전에 인지적 근거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參考文獻

- 陳一民, <介詞新探—關於介詞與動詞的划界及定位問題>, 《湘潭師範學院學報》, 1996年, 第2期。
- 崔健, <韓漢空間標記詞的“共用”和“通用”現象>, 《漢語學習》, 2006年, 第6期。
- 崔希亮, 《語言理解與認知》, 北京: 北京語言大學出版社, 2004年。
- 姜海燕, 《朝漢空間概念的隱喻對比》, 延邊大學碩士論文, 2004年。
- 李金靜, <“在+處所”的偏誤分析及對外漢語教學>, 《語言文字應用》, 2005年, 9月號。
- 柳英綠, <漢語“在+Np”和朝鮮語“Np+位格或與格”的對比>, 《語文研究》, 1985年, 第2期。
- 呂叔湘 主編, 《現代漢語八百詞》(增訂版), 北京: 商務印書館, 1999年。
- 齊滬揚, 《現代漢語空間問題研究》, 北京: 學林出版社, 1998年。
- 申敬善, 《現代漢語“在”字句研究》, 廈門大學博士學位論文, 2006年。
- 王葆華·申敬善, <介詞“在”多義性的認知解釋>, 《中國言語研究》, 2008年 第27卷。
- 국립국어원,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1』, 커뮤니케이션북스, 2007년.
- 김현희, 『현대중국어 ‘在’에 대한 인지적 고찰』, 연세대학교 석사논문, 2005년.
- 남기심, 『국어 조사의 용법-‘에’와 ‘로’를 중심으로』, 도서출판박이정, 1996년.
- 박종환, 「인지문법에 의한 현대 중국어의 다의어 연구」, 『중국언어연구』제5권, 1997년.
- 박창수, 『한국어 조사 ‘에서, 에’와 상응하는 중국어 표현법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년.
- 서정수, 『국어문법』, 뿌리 깊은 나무, 1994년.
- 안령군, 『한국어 조사 ‘에’의 의미와 용법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논문, 2005년.
- 염준, 『전치사 ‘在’와 ‘에서, 에’의 대응 연구-처소 의미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년.

- 유재원·김윤정, 「존재 표현에 나타난 한국인 중국어 학습자의 중간언어 연구-
오류 유형 분석 및 목록화를 중심으로」, 『중국연구』제43집, 2008년.
- 王 鵬, 『한국어 조사와 중국어 개사의 대응관계 연구』, 부산대학교 국어국문 석
사학위논문, 2008년.
- 이기동, 「조사 ‘에’와 ‘에서’의 기본 의미」, 『한글』제173호, 1981년.
- 이희자·이종희, 『사전식 텍스트분석적 국어 조사의 연구』, 말뭉치 기반 국어 연
구 총서 1, 연세대학교 언어정보 연구원, 한국문화사, 1998년.
- 임지룡, 『인지의미론』, 탑출판사, 1997년.
- 존 R. 테일러, 조명원 옮김, 『인지언어학이란 무엇인가』, 한국문화사, 1999년.
- 최재희, 『한국어 문법론』, 태학사, 2004년.
- E. Traugott & B. Heine, 『Approaches to Grammaticalization Vol. 1』,
Amsterdam/ Philadelphia :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1991.
- G. Lakoff(1987), 이기우 옮김, 『인지의미론』, 한국문화사, 1994년.
- George Lakoff & Mark Johnson. *Metaphors we live by*. (2nd edition).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3.
- M. Johson(1987), 노양진 옮김, 『마음속의 몸』, 철학과현실사, 2000년.
- R. W. Langacker, 이기동·김중도 옮김, 『인지문법』, 한신문화사, 1991년.
- Zlatev, Jordan. *Spatial Semantics*. In Geeraerts, Dirk and Hubert Cuyckens
(eds.): *The Oxford Handbook of Cognitive Linguistic*.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7.

<Abstract>

A Contrastive Study between the Chinese preposition '在' and the Korean preposition '에/에서' within the domain Cognitive linguistics

Shin Kyung Sun

The paper examines the original meaning and multi-meaning network of modern Chinese '在', using the Cognitive Linguistics' Intention Schema theory. It attempts to use the cognitive approach to discuss the corresponding relationship's law of modern Chinese '在' and Korean preposition '에/에서'. The meaning of space representation involves the prototypical meaning, and the meanings of non-spatial representation, for example, time, extension, condition, bring through prototypical meaning's mapping.

The multi-meaning of '在' has a corresponding relationship with Korean preposition '에/에서'. When '在' appears ahead of a verb, it corresponds with '에서', and it also expresses place of activities and dynamic existence relationship; when '在' appears behind a verb, it corresponds with '에', it also expresses place of arrival after action and static existence relationship. Based on the above observations, through the Intention schema of '在' and '에/에서', the paper shows that the space markers of modern Chinese and Korean have a common representational concepts according to human cognitive process.

Key Words : Chinese preposition '在', Korean preposition '에/에서', Image Schemas, Polysemy, Cognitive linguistics

투 고 일 : 2010. 1. 10. / 심 사 일 : 2010. 1. 15. ~ 2010. 2. 10. / 게재확정일 : 2010. 2. 15.